

기조발제

도농교류 정책현황 및 과제

송 두 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시작하는 말

- 정부에서는 도농교류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농촌-도시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도농교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도농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도농교류가 낙후된 농촌을 위한 일방적 부조가 아니라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상호간 필요한 것을 주고 받는 ‘상호부조’, ‘도농상생’ 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대전대도시권에 인접해 접근성이 양호할 뿐 아니라, 다양하고 독특한 농촌체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도농교류를 위한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도농교류정책을 능동적으로 펼치지 못한다면 인구감소 및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농어촌의 소득향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본 글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인식 하에서 충청남도과 시군의 도시-농촌교류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다음, 향후 충청남도과 시군의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코자 함.

II. 도농교류 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1.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

1) 제정이유

- 도농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제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 농어촌에서는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증진하고, 도시민의 휴양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써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2) 기본체계

- 2008년부터 시행중인 도농교류촉진법의 기본체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 기본이념, 정책과제, 정책수단, 정책추진체계 등 크게 5가지로 구성

<표 1> 도농교류촉진법의 기본체계

목 표	→	국가의 균형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 ○ 도시민의 자연 및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휴양수요 충족
기본이념	→	○ 도시와 농어촌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도농상생 도모
정책과제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 ○ 도농교류협력활동 활성화 ○ 도농교류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정책수단	→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및 운영지원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의 평가 ○ 농어촌체험교육활성화,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증제도 운영 등 ○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및 농어촌정주에 필요한 정보·프로그램 제공 등 농어촌 정주지원 등 ○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등
정 책 추진체계	→	○ 농림수산식품부 : 도농교류 활성화 정책 총괄 및 지원 ○ 지자체 : 정책수단 세부시행방안 수립 및 시행

- 도농교류촉진법의 핵심내용

- 첫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및 육성·지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타법 적용배제 및 특례(공중위생관리법 적용배제 등), 시장·군수의 지도·점검과 지원·관리
- 둘째, 도농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농자매결연 및 도농교류 협력활동지원,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의 평가,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와 농어촌정주 지원,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등

- 셋째,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도농교류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선발·활동, 도농교류 전문인력·체험지도사·마을해설가 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
- 넷째,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취소 등
- 도농교류촉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 등(제2조 및 제3조)
 - 초·중등 학생들의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제10조)
 - 도시민의 농어촌이주 및 정주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제11조)
 - 민간차원의 도농교류 지원기구를 지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여 도농교류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제12조)
-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지정제도에 대한 세부시행 절차(제2조 및 제3조)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안전·위생교육 등의 시행기준(제4조 및 제5조)
 -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발급(제8조)
 -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제9조 및 제10조)

2. 도농교류 5개년 계획(2010-2014)¹⁾

1) 개요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12월 1일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와 농어촌’이라는 비전하에 도농교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 계획은 2007년 제정된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에 근거하여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교류사업을 ‘도농상생’이라는 비전하에 통합함으로써 향후 질적 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이 계획은 도농교류의 생활화, 농어촌 체험·휴양기반의 브랜드화, 도농교류 인적 자원 양성, 도농교류의 글로벌화라는 4대 추진전략과 11개의 과제로 구성.

1)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보도자료, 2009.12.1.

2) 도농교류 정책추진현황

- ◆ (도입기, '84~) 농외소득정책의 일환으로 농촌관광농원 추진
- ◆ (확대기, '02~) 체험마을 활성화로 도농교류 양적 확산
- ◆ (성장기, '08~) 도농교류촉진법 시행으로 제도적 뒷받침

- 1984년부터 농촌소득원으로 관광농원, 농어촌휴양사업 도입
 - 농어가의 농외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농어촌휴양지 개발 도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등 근거자료
 - 관광농원(1984), 민박(1993), 주말농원(1994) 등 개별사업 위주로 추진
- 2002년부터 마을단위 농어촌체험관광 도입, 삶의 질 향상법(2004)에 도농교류활성화 시책 추진근거 마련
 - 체험마을, 테마공원, 어촌·어항관광개발 등 하드웨어 사업 추진
 - 농어촌체험 및 도농교류의 홍보·마케팅, 주민역량 강화, 체험마을 사후지원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 1사1촌운동 등 민간차원 도농교류운동 추진(2006-)
- 2008년 도농교류촉진법 시행으로 질적 성장 도입단계에 도래
 -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육성, 체험교육 활성화,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도농교류지원지구 지정 등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3) 도농교류 정책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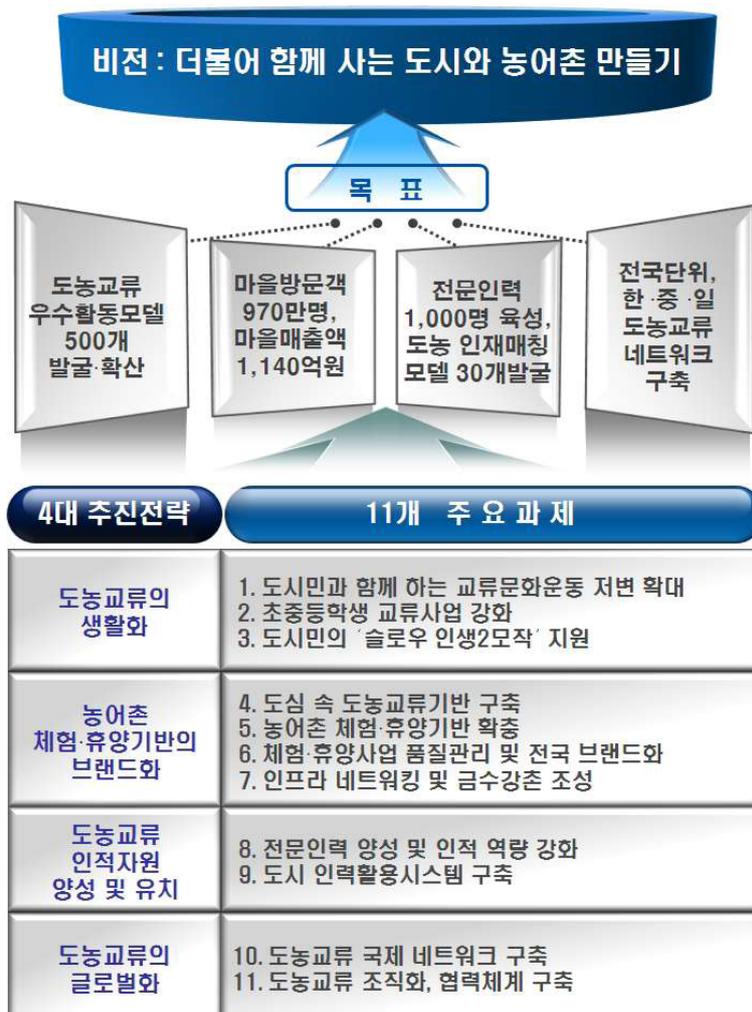
- 성과는 농어촌 공간에 대한 인식전환, 도농교류 여건 조성
 - (과거) 식량생산 공간 → (현재) 휴양 등 다원적 공간
 - 체험·휴양경험 증가, 인프라 확대, 제도적 기틀마련
- 미흡한 점으로 양적확대 대비 질적 성장 미흡
 - 도농교류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 조직화 부재, 인프라 질 저하
 -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 저조

4) 도농교류 트렌드 및 시사점

- 농어업·농어촌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 개방된 세계시장, 가격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선택기준, 농업생산은 토지이용에서 자본·기술·지식, 자원의 지속가능성 중시
- 농어업·농어촌 메가 트렌드에서 본 도농교류 트렌드
 - 크게는 글로벌화·자원·환경을 중시, 작게는 건강·가치·여가를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반영

5) 도농교류 정책방향

(1) 도농교류 정책비전 및 전략



(2) 도농교류 사업의 추진방향

- 지역주도의 도농교류 지원체제로 개편
 - 중앙정부는 전국단위 교류네트워크 및 타부처 협력체계 구축, 도시에 효과적 정보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에 중점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게 도농교류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 및 추진
-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등 소득사업과의 연계강화
 - 민간, 지자체, 부처연합, 민·관 연합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협력활동 전개
 - 농어촌에 있는 음식, 문화, 예술, 체험·휴양정보를 결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 창출
 - 각 부처의 농산어촌 체험마을사업을 연계, 시너지 효과 제고

3. 충청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활성화 지원 조례

1) 목적

- 도시와 충청남도 농산어촌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농산어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활력화 유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정의

- 농산어촌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사업을 말함

2) 주요내용

-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매년)
-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 농산어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시·도 청소년 등에 참여장려 및 경비 지원
- 선진사례 보급 및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및 체험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실시
- 농산어촌체험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농산어촌체험 운영인력 교육실시
- 행정기관, 기업체 등과 1사1촌 자매결연 장려 및 지원
-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 등

Ⅲ. 도시-농어촌교류 정책 현황

1. 우리나라 도농교류 정책

1) 정책의 개요

- 국내 도농교류 정책은 1984년부터 시작된 관광농원사업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농어촌구조개선정책의 틀 내에서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농원사업, 농어촌휴양단지사업, 농촌민박사업, 주말농원사업 등을 시작하였음.
- 1999년부터 농·소·정협력사업²⁾이 시작되면서 도농교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고, 충청북도, 강원도, 순창군, 무주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발전계획 수립에 도농교류가 강조되기 시작하였음.³⁾
- 농·소·정협력사업은 2008년부터 '도·농교류협력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대상사업은 농어촌 체험사업(농어촌 일손돕기, 농사체험, 친환경농수산물 체험), 농어촌지키기사업(농어촌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직거래전시판매, 전통문화공연), 농어촌알리기 사업(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견학 및 농어업, 농어촌의 가치 등에 대한 교육), 농어촌폐교공간 활용사업(폐교를 활용한 체험학교에

2)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 등 35개 단체를 1999년 사업자로 선정하여 도시민들이 농업인과 직접 교류하는 농촌현장체험, 도시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벼 포트 지원, 우리 농산물 소비기반확대를 위한 전시판매와 직거래사업,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사업, 국민실천운동 등 다양한 사업 지원.

3) 김병률 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소정 협력사업 2차년도 평가와 개선방안, C20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7.

서 전통음식, 공방 등을 하거나 인근 농산어촌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체험활동 하는 것) 등임.

- 도농교류는 농어촌관광의 개념을 도입하는 형태로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 사업'(2000),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2002),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 마을조성사업'(2002),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2001), 산림청의 '산촌 생태마을'(1996), 농협 '팜스테이마을'(1998)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2> 농어촌관광마을 현황

사업명	주관부처	사업기간	'09 현재 마을수	사업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수산식품부	2002-2017	364개	2억
전통테마마을	농진청	2002-2009	160개	2억
어촌체험마을	농림수산식품부	2001-2013	95개	5억
아름마을가꾸기	행정안전부	2002-2003	23개	10억이상*
산촌생태마을	산림청	1996-2012	153	14억&16억

주: 아름답마을가꾸기는 2002년, 2003년 시행하였고 이후는 시행하지 않음.

2) 주요사업

(1)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의 농촌사랑운동

- 농촌사랑운동은 도시소비자 및 각 기관 단체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사랑나눔 실천운동으로 활력있는 농촌을 가꾸고 국민건강을 지킴으로써 농업인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도상생운동으로서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
- 주요사업
 - 농촌사랑지도자 연수원 운영(마을지도자,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과, 이민여성농업인 농촌정착지원 등 교육과정)
 - 1사1촌 자매결연 체결 ; 8,959건
 - 농촌사랑운동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전개
 - 중앙부처 자매결연 참여로 농촌사랑운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성숙과 추진동력 확보 등

(2) 농어촌공사 도농교류사업

○ 개요

- 도농교류사업이란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산어촌 관광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농산어촌지역의 활력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도농교류사업의 목표

-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생활, 쾌적한 전원생활, 안전한 농어촌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어민에게는 소득증대, 인구유지, 어메니티 증진을 실현키 위해 도농교류인프라 구축, 도농교류 수요창출, 지역개발 역량강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등 도시민과 농어업민이 함께하는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

○ 도농교류사업

- 도농교류사업은 도농교류 인프라확충, 도농교류 수요창출 홍보, 지역개발역량 강화 등

○ 농어촌유학시범사업

- 농어촌유학은 도시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 시골에서 머물면서 그 지역 학교를 다니며, 6개월 이상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의 일상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 팜스쿨시범사업

- 팜스쿨이란 도심지 초등학교와 농촌체험마을간 결연을 맺어 초등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
- 팜스쿨시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미래의 농산물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서울시 등 광역시소재 초등학교 20개를 선정하여 1개교당 5백만원을 지원하여 참여학교와 마을간 MOU를 체결하여 추진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 농어촌 정주희망 도시민의 성공적이 이주 정착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시군의 도시민 농어촌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의미

3. 충남도 도농교류 정책

1) 정책현황

- 충청남도의 도농교류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책을 지원하는 형태와 충남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중앙정부 추진시책을 지원하는 형태는 농업정책과의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수산과의 "어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산림복지과의 "산촌생태마을"(산림청), 관광산업과의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해양수산부), 농업기술원의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등이 대표적임
- 충남도 자체적인 시책은 관광산업과의 템플스테이, 종교체험관광, 녹색관광 등을 들 수 있고, 충남도의 체험활동 장려 및 도농교류 지원을 위해 "농산어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1) 조성시기⁴⁾

- 200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농어촌체험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총100개소로 이중 2007년도에 30개소(30%), 2006년과 2008년이 각각 22개소(22%)를 차지하여 비교적 최근부터 본격적인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3> 농어촌체험마을 조성연도별 현황

구 분	녹색농촌 체험마을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어촌체험 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비고
2001	-	-	1	-	1
2002	2	-	1	1	4
2003	1	-	-	3	4
2004	3	-	1	2	6
2005	6	-	3	2	11
2006	14	-	1	7	22
2007	14	3	-	13	30
2008	13	3	-	6	22
계	53	6	7	34	100

주: 산촌생태마을 29개소 제외한 숫자임

4)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농산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점검결과, 2009.10.

(2) 시설운영

- 농어촌체험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에서 운영중인 시설은 주로 체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교류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표 4> 농어촌체험마을 체험시설 현황

구 분		주 요 시 설
체험시설	영농체험	주말농장, 약초단지, 사과체험장, 독살체험, 약초단지
	농촌생활체험	밤음식체험장, 농산물가공체험장, 전통식품숙성체험실
	전통문화체험	전통문화체험관
	자연생태체험	동물체험장, 승마체험장, 곤충체험장, 천문대, 자연학습원, 연꽃단지
판매시설		구판장, 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		민박시설, 폐교리모델링, 캠핑카, 빌리지하우스,
교류시설		도농교류센터, 방문자 센터, 교육관
편의시설		주차장, 마을쉼터, 정자, 건강관리실, 공중화장실, 농막, 공동 샤워장, 송림공원, 향토방, 팜투어마차, 라카룸, 캠핑장, 야외工房, 튜립공원, 물레방아, 관광열차, 셔틀버스

(3) 체험프로그램

- 농어촌체험마을에서 운영중인 체험프로그램은 영농체험, 농촌생활체험, 전통문화 체험, 자연생태체험 등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5> 충남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영농체험	밤(사과, 딸기, 토마토, 매실, 버섯, 포도, 배, 뽕잎, 오디, 옥수수, 단호박, 토종꿀 수확하기, 감자(고구마, 인삼, 약초, 맥문동)캐기, 바다(민물, 갯바위) 낚시, 통발, 골뱅이(조개)잡이, 벼베기, 나무키우기, 친환경농업, 누에키우기, 알밤줍기 등
농촌생활체험	메주(떡, 도토리, 우유치즈, 포도주, 손두부, 호박즙, 딸기잼, 호두과자, 종가음식) 만들기, 장(김장) 담그기, 승마, 산양젓짜기, 염전체험, 가재(다슬기) 잡기
전통문화체험	다도(꽃차), 도자기, 솟대, 천연염색, 집풀공예, 뗏목타기, 민속축제, 전통놀이, 유적 답사, 소달구지타기, 나룻배타기, 풍물교실, 약썩빚질, 유람선, 예술체험, 전통줄다리기, 농바우끄시기, 떡매치기, 모시체험, 선비체험, 유적답사, 삼베길쌈, 칠보공예, 함초체험, 독살
자연생태체험	야생화, 산나물(고사리), 갯벌, 별자리관측, 물놀이, 래프팅, 봄꽃관찰, 박쥐동굴, 향토길체험, 연꽃체험, 해넘이, 송림욕, 생태뚝방, 곤충채집, 민물고기, 꿀벌생태체험, 녹용

(4) 방문객수 및 부가가치

- 농어촌체험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문객(2009. 1.1~2009.7.31) 수는 총 379,930명, 수입금액은 2,790.9백만원, 마을당 평균 방문객수는 6,801명, 평균 수입금액은 45.6백만원임.

<표 6> 농어촌체험마을의 방문객수 및 수입금액 현황

구 분	방문객수(명)		수입금액(백만원)	
	계	평균	계	평균
농어촌체험마을	379,930	6,801	2,790.9	45.6

2) 운영실태 평가

- 충청남도에서는 2009년 8월-9월에 139개 농산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사업규모, 사업비투자내용, 체험마을 운영실태 및 시설활용실태, 문제점 및 대책,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도 직접점검(5개 사업 129개소) 및 외부전문가평가(2개사업 10개소)를 실시하였음.
- 평가결과를 요약해보면
 - 방문객 체험수요의 감소로 인해 도농교류시설운영이 미흡하여, 안내표지판, 마을이정표, 화장실, 급수시설, 체험관 등 체험교류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 방문객을 확보하기 위한 4계절 체험프로그램 개발, 마을지도자의 역량제고, 체험객 유치 노하우 개발 등이 요구됨
 -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운영인력의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바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농산어촌체험마을내 마을주민간, 리장과 대표자, 현주민과 이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마을에서 생산 및 가공하는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취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3) 시·군 도농교류 시책

- 충남도 시군에서는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도농교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농교류를 브랜드화하여 추진하는 시군은 공주시의 “5도2촌 주말도시”, 청양군의 “Green-com”, 홍성군 “내포녹색체험” 등이 대표적임
- 공주시 등과 같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도농교류사업을 브랜드화하여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은 농산어촌체험마을 단위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군의 도농교류 시책의 주요내용은 주로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도시민들의 농산어촌체험마을방문을 통한 영농체험, 음식만들기 등 농촌생활체험, 전통문화체험, 자연생태체험, 자매결연을 통한 일손돕기 및 농산물판매, 마을축제를 통한 교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4) 농협의 도농교류사업

-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도 ‘팜스테이’마을지정 및 지원, ‘1사1촌’, ‘1교1촌’, ‘자매결연’, ‘주말농장 운영’ 등의 방식을 활용한 도농교류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음.
 - 팜스테이마을 지정 : 34개마을, 1사1촌 : 736개

IV. 도농교류 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1. 도농교류정책의 문제점

□ 도농교류정책의 분산추진과 통합추진조직 부재

- 대표적 도농교류정책이라 할 수 있는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이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 추진됨에 따라 농촌에 대한 중복투자 및 사업간 연계부족에 따른 비효율성이 노정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부서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도농교류를 추진할 전담조직이 부재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창의력 발휘의 한계

-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마을 간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창의력을 발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업내용 등 사업전반에 대해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도농교류 통합계획 부재

- 중앙정부에서는 「도농교류촉진법」에 근거하여 「도농교류 5개년('10~'14)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음.
- 그러나 충남도와 시군에서는 도농교류촉진법의 지방적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도농교류 통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지속적, 쌍방향 교류의 부재

- 상당수의 도농교류가 일회성 체험행사나 자매결연, 이벤트에 그치는 반면, 지속적이고 쌍방향 교류로 발전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임
- 도농교류가 농촌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농촌과 도시주민간 인간적 신뢰에 기반한 상생발전에 대한 의식이 성숙되어 있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농촌마을의 도농교류역량 미흡

-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농산어촌체험마을의 경우 도농교류프로그램, 도시민유치방안, 마을홍보 등의 측면에서 행정기관이나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교류역량이 미흡한 실정임
- 농산어촌체험마을간 도시민들의 체험기반, 체험프로그램 등의 유사성으로 인해 도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동인 및 경쟁력에 한계가 있음

□ 주민의 참여부족과 도시민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 농산어촌체험마을은 마을지도자나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반 마을주민들은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참여율이 부족한 실정임
 - 도농교류를 추진하는 마을지도자와 일부 마을주민간 도농교류 사업에 대한 인식차이, 사업추진 등으로 인한 의견대립
-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마을을 방문하는 도시민의 증가에 따라 농촌마을 농가의 영농활동, 주차공간부족,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농촌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2. 도농교류정책의 과제

□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전환

- 지역내에 산업단지나 주거단지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내 종사자 및 거주민의 증가를 통한 지역활성화도 바람직하지만, 지역의 매력물을 발굴, 조성함으로써 지역을 방문하는 교류자를 유치하는 지역활성화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시기임
- 도농교류는 교류자의 증가를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일 뿐 아니라, 행정구역을 넘어 지역간 협력 및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는 예비사업
- 따라서 단기간내에 성과를 창출하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농교류를 바라보는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 도농교류 통합계획 수립

-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도농교류 5개년('10~'14)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도농교류 통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도농교류 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독자적 도농교류시책 추진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도농교류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 독자적 도농교류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방안모색이 요구됨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대표하는 독자적 도농교류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마을단위의 도농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함

□ 도농교류조례 제정 및 도농교류전담부서 설치

- 충청남도에서는 “도시-농어촌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각 시군에도 “(가칭)도농교류촉진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질적 도농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농교류관련 기관간의 협약 및 협정을 체결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공주시의 ‘5도2촌주말도시팀’과 같이 행정기관에도 도농교류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도농교류시책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함

□ 전문가들의 컨설팅 및 코칭 강화

- 농촌주민들은 도농교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단계마다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코칭 및 컨설팅을 통한 사업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연스러운 학습과정을 거치게 됨
- 공주시와 청양군의 사례와 같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대학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 도농교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제공

-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농교류 우수마을에 대한 견학, 현장방문 등을 통해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마을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여타 교육방법보다 유용한 수단임

□ 도농교류 전문인력의 양성

- 도시-농어촌교류 촉진법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여 도농교류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됨
-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등에서는 한시적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평생교육원내 상시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V. 맺음말

- 도농교류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활성화 정책에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임
- 지금까지의 도농교류 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농협·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민박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
- 이러한 시점에서 공주시의 '5도 2촌 주말도시', 청양군의 '그린컴 운동'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농교류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농촌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 공주시의 경우 사이버시민제도의 도입으로 지역에 대한 귀속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고 교류자의 수를 늘려 지역활성화를 꾀하려는 시도는 그간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보다는 한 단계가 진보된 시책이라 볼 수 있음
 - 청양군의 경우도 농산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도농교류실적 평가를 통해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주민교육을 위한 '농촌관광대학'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농교류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2008년 도시-농어촌간 도농교류촉진법의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가 추진될 수 있는 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금까지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도농교류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농교류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임

- 본 글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농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충남도에서 추진중인 도농교류 시책의 현황 및 문제점, 기초자치단체 도농교류사례, 향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보다 심도 있는 도농교류에 대한 논의에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보다 상세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임